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6~8/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보리도차제의 마르티 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	뻰첸라마 롭상예쎄	운주사
2	법륜 스님의 행복	법륜	나무의마음
3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4	불교개설 (조계종 신도교재)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정운	민족사
6	부처님의 생애 (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7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자우	사유수
8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9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이자랑, 이필원	민족사
10	붓다 연대기:완전한 분 붓다의 위대한 삶과 가르침	이학종	불광출판사

책세상

팔순 노학자가 회고한 삶·학문 여정



말로 말을 버린다

이민용 지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기획
모시는 사람들 펴냄
2만원



在美학자 원로 이민용 선생
에세이, 기고 등 모아 펴내
이민자-거리감 조화시키며
한국, 불교, 종교 깊게 사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재미(在美) 불교학자인 이민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사진>은 팔순을 넘겨서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자이면서 독실한 신심을 가진 불자다. 그의 삶과 학문의 여정, 그리고 불교·종교론을 담아낸 〈말로 말을 버린다〉가 발간됐다.

저자는 "내 인생을 〈금강경(金剛經)〉을 천착하는 것으로 보내려 했으나 결국 금강석을 다루는 일로 끝마치게 됐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

이는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강단에도 섰지만, 홀연히 미국으로 건너가 학문과 담을 쌓고 지내며 생업(보석상)에 전념하다 다시 학문과 직업을 병행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친구들에게 농담 삼아 하던 말이다.

이민용 이사장은 한창 학문적 성숙을 향해 가는 36세의 나이에 홀연 학문 현장을 떠나,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된다. 자의식이 생길 때부터 삶의 유일한 목표였던 학문의 길을 벗어버리는 과정은 만남도 고(苦), 헤어짐도 고(苦)의 연속이었다.

이후 그는 우연·필연적인 기회에 하버드 대학의 동양학 강의를 청강하면서, 다시금 학문의 길로 회귀하게 된다. 역설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동양학 내용에 한국의 불교나 유학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것이 그의 의욕을 자극했다. 미국 사회에서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 전통과 일본 불교 특징 사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회귀한 학문 여정의 최정점, 바로 앞에서 그는 전회(轉回)를 선택한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학문과 수양을 겸전하는 삶의 자세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이후 저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찾아 헤매는 자"로서 초빙교수, 방문교수로 강의하거나, 한국불교연구원, 종교문화연구소의 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소임'을 수행해 왔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학자의 책상 위에 책갈피에 존재하고, 박물관에 전시된 박제 상품으로서 존재하는 불교학을 벗어나, 기존의 틀을 깨고 껍질을 벗겨 내온 과정이었다.

책은 "재수하는 학문과 삶"이라고 스스로 명명한, 자신의 학문 여정을 회고한 1부에 이어 2부 불교 리뷰, 3부 이민자의 눈으로 본 세상, 4부 단상은 한국과 미주에서 신문, 뉴스레터 등에 기고한 단편들이 수록됐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살아왔던 저자는 기독교 신앙이 생활양식이 된 미주 한인 사회에서 '섬'처럼 떠 있는 불교를 신행하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였다. 어느 곳에서도 주변인으로 머물렀던 그이기에 그가 전하는 미국 내의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고찰들은 귀 기울일만 하다.

저자는 단편적인 글들을 통해서, 미주 한인 사회에 불교가 이식되고 정착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린다. '내부를 간직한 외부자'로서 저자는 미국에서, 불교의 진면목을 더 넓게, 더 멀리, 더 깊게 천착해 나간다.

이 책의 또 하나의 축은 그가 평생 불교학의 언저리를 떠돌며 만났던 적지 않은 수의 불교학, 종교학의 선배, 동학, 후배들의 면모를 알려준다는 점이다. 36세에 학문의 길을 접으며 그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부조리한 학교 사회의 관행보다도, 그동안 만났던 뛰어난 스승, 동학(同學)들과 이별하는 일이었다. 그들로부터 받은 영감과 그들의 혜지(慧智)들은, 저자의 단편적인 회고 속에서도 생생하다. 이기영, 서경수, 박성배, 안병무(기독교), 일타스님 등의 불교학 석학과 그리고 스승 이기영을 통해 접한 장 필리오자, 포르 드미에빌, 주세페 투치, 라모트, 외젠 뷔르누프 등 서구의 불교학자에 이르기까지 짧은 글 속에서도 그들의 학문적 업적을 간접경험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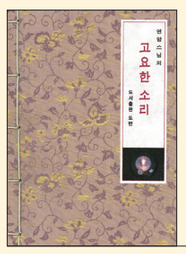
이러한 학문 여정에 대한 에세이들을 통해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여러 가지 행태와 과제 상황을 접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종교인가, 종교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의 빛을 얼핏얼핏 엿볼 수 있게 된다.

책 제목인 '말로 말을 버린다(因言遣言)'는 〈대승기신론〉의 경구는 그가 미주 한인사회, 그중에서 불교계에 대하여 말의 위험성, 말로 인해 오해되고 빚어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무릅쓰고 자기주장을 펼쳐 나갈 때, 스스로를 경계 시키는 말이다. 그러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소통단절'을 겪고 있는 현대인에게 돌려주는 경구이기도 하다.

▲저자 **이민용 이사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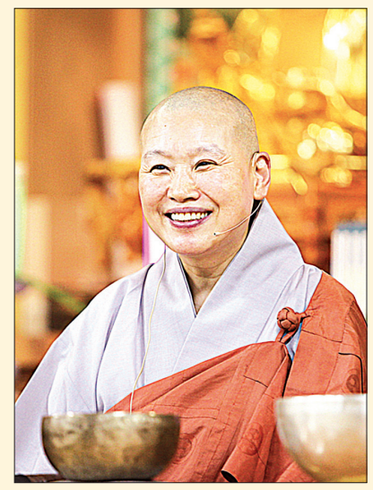
1941년 서울 출생.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공부했으며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국대, 가톨릭대, 서강대 등에서 강의했다. 동국대 역경위원,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국제참여불교연대 실행위원, 영남대 국제교류원 교수, 동국대 객원교수, 한국불교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2018년부터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불교학 연구의 문화배경에 대한 성찰', '미국 속의 불교와 불교의 미국화', '서구불교학의 창안과 오리엔탈리즘' 등의 글이 있다.

토닥토닥, 쓰담쓰담 마음 보듬는 글들



고요한 소리

연암 스님 지음
도서출판 도반 펴냄
1만5000원



연암 스님이 대중에 보내는
'고요한 소리' 메시지 묶어

그물에 걸려듭니다.
자기를 고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의 말을 들어만 주더라도 마음의 세계는 넓어집니다.

-본문 중에서

불교 공부는 본래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와 닿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불교의 콘텐츠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최대한 쉽게 만들려는 노력을 수없이 해왔다. 그러한 노력에 스님들의 온갖 정성과 창의성들이 녹아 있다.

현대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여서 온갖 정성을 드린 새롭고 창의적인 불교의 콘텐츠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많은 불자들의 공부를 위해서 방편으로 쓰이고 있다.

용인 행복선원 주지 연암 스님<사진>은 매일 아침 '고요한 소리' 메시지를 보내며 하루를 시작한다. 스님의 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불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도 많고, 또 해야 할 것도 많아서 아차 잊기 쉽고 소홀하기 쉬운 것이 마음공부이다. 그런 불자들에게 매일 아침 도착하는 스님의 글은 마치 마음을 깨우는 죽비와도 같다.

연암 스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지도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글도 그렇다.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쉽고, 짧고, 직접적이고, 간단한 글이다.

그렇지만 수행자의 글답게 그 속에는 깊은 마음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쉽지만 쉽지 않은 역설이 있는 것이다.

나에게 닥친 일들은 내가 불러들인 것이기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나는 못해! 하기 싫어!'
스스로 문을 닫으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고정관념은 결국 나를 가두게 되어 스스로 쳐 놓은

불교의 마음공부는 본래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단지 오랜 세월 동안 묵은 고정관념과 습관이 깨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사실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의 차이인 것이다.

책 중간중간 삽입된 사진들은 연암 스님이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들이다. 이는 책의 내용과 더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책을 보고 연암 스님의 법문을 듣고 보고 싶다면, 행복선원 유튜브 채널을 접속하길. 그리고 스님의 글은 행복선원 밴드에서도 만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저자 **연암 스님**은

지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 봉녕사 강원을 졸업했다. 동학사에서 자비명상과 위빠사나를, 붓다스쿨에서 위빠사나를 지도했다. 현재 행복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출가, 입산, 부처의 삶을 가다

신록같은
비구니 스님들의
인생관, 수행관, 세계관!!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동학사 일초 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의 편지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원 동학사!
동학사 화엄학림장 일초 스님과
학인들의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마음은 초록색 힐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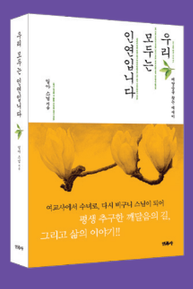
일초 지음 | 292쪽 | 14,500원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일상생활상

KBS 2TV 다큐 3일의 신선한 감동!
비구니 강원 청암사의 36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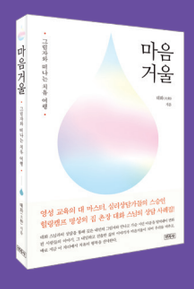
청암사 승가대학 편집실 | 360쪽 | 15,000원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수녀에서 비구니스님으로

독특한 이력의 일아 스님,
고등학교 교사에서 종교인으로!
태국, 미얀마, 미국에서 보낸 종교인의 삶!
체험으로 빚은 수행철학, 깨달음의 책

일아 지음 | 356쪽 | 12,000원



마음 거울
그림자와 떠나는 치유 여행

마음수련 프로그램 동사섭의 개척자이자
영성 교육의 대 마스터, 상담가들의 스승인
대화 스님의 상담 사례집!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의 행복을 선사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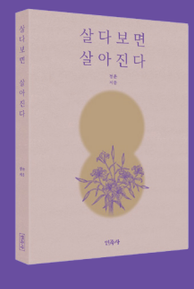
대화 지음 | 328쪽 | 15,800원



종이 칼
법념 스님의 산문집

팔순을 바라보는 노비구니스님이
컴퓨터 자판을 친다. 불현듯 연말이면
죽음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진다.

법념 지음 | 252쪽 | 13,800원



살다보면 살아진다
대중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
잘 견디고 있다고 응원하는 정운 스님
일상 생활 속에서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책

정운 지음 | 252쪽 | 13,800원